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제70호 (2022.3) pp. 59～80
10.21482/jbs.70..202203.59

산스크리트 조어(造語) 접사 '-tva, -tā'에 대한 P. 5.1.119의 'bhāva' 이해*

–pravṛtti-nimitta로서의 기능에 관하여

김현덕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dvijakim@knu.ac.kr

I. 들어가며
II. '-tva, -tā'의 의미 = 말(śabda)의 적용 근거(pravṛtti-nimitta)
III. 맺음말

요약문

이 논문은 그 동안 당연하여 받아들여 왔던 번역어에 대한 시각이 산스크리트 문법 규칙의 적용을 통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śūnya-tā, brahma-tvam(-tā), buddha-tvam(-tā), deva-tvam(-tā)' 등의 단어들에 사용된 2차 파생접사(taddhita) '-tva, -tā'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들 접사가 추상명사를 만든다는 점에서, 당연히 '~성(性)' 또는 '~라는 성질(상태)'로 번역하곤 하였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자신이 가지는 '~성'이라는 언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2035059).

감각으로 이들 접사의 파생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했을 때 과연 본래의 (또는 바른) 이해가 가능할지는 의심스럽다. 무릇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나 이해하는 일은 만만하지가 않다. 문법체계가 우리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산스크리트와 같은 고대어와 한역어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빠니니는 문법규칙 P. 5.1.119(tasya bhāvas tvatalau)에서 '-tva, -tā' 접사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들 접사의 적용 조건인 'bhāva'의 의미를 우선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완성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 단어가, 본 논문이 고찰하는 문맥에서는 말의 사용 근거(pravṛtti-nimitta)로서 기능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인도 문법학 전통에 따르면, 실체에 대한 말의 사용 근거는 셋(jāti, guṇa, kriyā) 또는 넷(jāti, guṇa, kriyā, yadṛcchā)으로 분류된다. 결국 '-tva, -tā'의 사용, 즉 어기(語基, prakṛti)에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적용 근거가 고려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 근거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artha)'라는 측면보다는 '무엇을 이유(nimitta)로 그러한 말이 사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주장한다.

주제어
산스크리트 조어(造語) 접사, bhāva, 말의 적용 근거(pravṛtti-nimitta), 행위(kriyā), 속성(guṇa), 보편(jāti), 빠니니 문법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산스크리트 조어(造語) 접사 '-tva, -tā'의 문법학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역어(漢譯語)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적 연구의 첫 번째이다. 산스크리트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접사들이 주로 성질 혹은 특성을 나타낸다고 흔히들 알고 있으며 실제로 空性(śūnya-tā), 梵性(brahma-tvam/-tā), 法性(dharma -tvam/-tā), 佛性(buddha-tvam/-tā),[1] 神性(deva-tvam/-tā)등에서와 같이 '~성(性)' 또는 '~라는 성질(상태)'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전혀 틀린 이해만은 아니다. 문법서들에서는 이 접사가 2차 파생어를 만들기 위해

1) 여기서 말하는 '불성'은 'buddha-dhātu'에 대한 번역어로서의 '불성'과는 맥을 달리하는 것으로, 순전히 접사 '-tva, -tā'와 복합어를 이룬 단어의 일률적 번역에 대한 예로서 제시한 것뿐임을 밝혀둔다.

명사류에 첨가되어 추상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성질, 특성은 물론 기능, 관계 등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2] 하지만 우리들 자신이 가지는 '~성'이라는 언어감각(예를 들어 '붙임性, 사회性' 등)으로 이들 접사의 파생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했을 때 과연 본래의(또는 바른) 이해가 가능할지는 의심스럽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가능할 것이다. 무릇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나 이해하는 일은 만만하지가 않다. 문법체계가 우리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산스크리트와 같은 고대어와 한역어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tva, tā'의 문법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하나의 시도라 하겠다.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형식과 본질은 구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앞서 예로 든 단어들에 대한 문법적 분석의 선행 연구 격으로, 먼저 '-tva, tā' 접사를 규정하는 문법규칙에 천착하여, 이것들이 단어를 구성하는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이들 접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tva, -tā'를 언급하는 연구 결과는 다수이지만 대부분은 이들 접사가 붙은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니니(Pāṇini, BC 6~4세기 경) 문법규칙(이하 P)을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오가와 히데요(小川英世 1986; 2006)와 타니자와 준죠(谷沢淳三 1987a; 1987b; 1996), 그리고 우네베 토시야(畝部俊也 2015)의 연구는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를 주는 것들로서 주목할 만하다.[3] 오가와는 "'-tva, -tā' 접사가 문법서[4]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광범

2) 辻直四郎 2003, 219 참조. 여기서는 이 두 접사가 "명사, 형용사에 첨가되어 광범위하게 추상명사를 만드는 중요한 접미사들로서 성질·본질·관념·윤리적 관계 등을 나타내고 때로는 집합체 또는 구체적인 사물을 언급하기도 한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이 두 접미사의 사용 빈도는 점차 증가하였고 때로는 논서·학술서·주석서 등에서 무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긴 복합어의 마지막에 첨가되어 '~라는 사실'로서 그 복잡한 내용을 총괄한다"고 설명한다.

3) 탈고 직전에 입수할 수 있었던 우네베의 연구는 오가와와 타니자와의 논쟁은 물론 논문의 목적인 접사의 의미 이해와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이 된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pravṛtti-nimitta'

위한 추상적인 성질을 의미할 뿐 아니라 보편(jāti), 행위(kriyā) 또는 행위와의 관계(sambandha)를 의미한다"[5]면서 문법적인 배경을 무시한 일률적인 '~성(性)'으로의 번역에 대한 경계심을 표하고 있다.[6] 한편 타니자와는 "문법학자(vaiyākaraṇa)는 '-tva, -tā'의 '~성(性)'이라고 하는 보편, 추상적 성질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지를 분류하고 있다"[7]고 하면서 이들 접사가 관계를 의미할 경우 '~성'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오가와의 위의 견해를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 오가와는 "문법가는 [-tva, -tā 등의] 접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관심은 있어도 '~성(性)'이라고 하는 보편, 추상적 성질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발상은 없다."고 재반박하고 있다.[8] 오가와는 '-tva, -tā' 등의 접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타니자와는 이것들이 보편 또는 추상적 성질을 의미하는 '~성(性)'이라고 해석될 때 때로는 보편(jāti)으로, 때로는 속성(guṇa)이나 행위(kriyā) 또는 관계(sambandha)로 각각 이해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9]

이들의 입장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와 같은 종류의 것처럼 판단되어 '그저 관점의 차이에 불과할 뿐'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법학적 논의라는 것은 대저 이와 같은 평가를 받기 십상인 영역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접사 '-tva, -tā'의 문법학적 의미에 관하여 빠니니의 관련 규정 및 주석서 등의 내용을 검토한다.

에 대해 이를 '의미론'과 구분해야 한다는 그의 언급은 논자 스스로의 오류를 파악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의 후속 연구 테마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논문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 앞의 각주 2를 참조.

5) 小川英世 1986, 94-95를 참조.

6) 小川英世는 'pācaka-tva, pācaka-tā'와 같은 단어를 '料理人性'으로 번역하여, 이를 요리인 일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이들 접사의 언어수준을 크게 일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pācaka-tva, pācaka-tā'는 문법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요리라고 불리는 행위(kriyā), 즉 pāka-kriyā'와 '요리자와 요리행위와의 관계(pāka-kriyā-sambandha)'를 의미한다. 앞의 논문, 94 및 97의 표를 참조.

7) 谷沢淳三 1987b, 58(각주 34)을 참조.

8) 小川英世 1988, 443(각주 1)을 참조

9) 후술하겠지만, 谷沢淳三는 '보편, 추상적인 성질'을 pravṛtti-nimitta라고 보고 있다. cf.畝部俊也 2015, 298.

II. '-tva, tā'의 의미 = 말(śabda)의 적용근거(pravṛtti-nimitta)

본 논문이 다루는 '-tva, -tā'는 어기(語基, prakṛti)[10]에 첨가되어 또 다른 명사 어간(prātipadika) 또는 불변화사(avyaya)를 만드는 2차 파생 접사(taddhita)[11]에 포함되는 조어 접사이다.[12] 이 접사들에 관한 내용은 특히 'bhāva'라는 용어와 관련된 18개의 문법규칙들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맥락에서의 것들은 P. 4.2.43, 5.4.27, 6.3.64에서 언급되고 있다.

접사(pratyaya)	개별 규칙	bhāva 관련 공통 규칙
-tva	*tve ca* ‖ P. 6.3.64	P. 5.1.119-136
-taL (-tā)	*grāma-jana-bandhu-sahāyebhyas taL* ‖ P. 4.2.43	
	devāt taL ‖ P. 5.4.27	

'bhāva'라는 용어는 위 관련 규칙들에서 규정하는 12개[13]의 2차 파생 접사들의 적용조건[14]으로, 본 논문에서 살펴보는 내용의 핵심을 이룬다. 오가와가 언급하고 있듯이, 산스크리트 문법학을 다루는 연구자라면 'bhāva'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문장에 난색을 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너무도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5] 따라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문맥에 따라 숙

10) 어기는 산스크리트 단어 형성(pada-vidhi)에 있어 형태론적 요소로 기능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동사어근, 파생 동사어근, 기본 명사어간, 파생 명사어간, 1차(kṛt)·2차(taddhita) 접사, 여성형 접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어기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강성용 2011, 216 이하와 DSG 259의 *prakṛti* 항목을 참조. cf. P. 2.1.1 "*samarthaḥ pada-vidhiḥ* ‖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규정들은 의미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DSG 235의 *padavidhi* 항목.

11) 빠니니는 *Aṣṭādhyāyī*(이하 A)에서, P. 4.1.76 "*taddhitāḥ* ‖ [이하에서 다루는 것들은] taddhita [접사]들이다."에서부터 P. 5.4.160 "*niṣ-pravāṇiś ca* ‖ 또한 [bahuvrīhi 복합어인] niṣ-pravāṇi의 뒤에서 [taddhita 접사 KaP는 발생하지 않는다.]"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양의 문법규칙들을 통해 2차 파생 접사들을 설명하고 있다.

12) 산스크리트 문법학에서의 단어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김현덕 2014, 176 이하를 참조.

13) 각 문법규칙이 규정하는 2차 파생 접사들은 다음과 같다: *-tva*, *-taL* (P. 5.1.119-120, 136), *-imanIC* (P. 5.1.122-123), *-ṢyaÑ* (P. 5.1.123-124), *-yaT* (P. 5.1.125), *-ya* (P. 5.1.126), *-ḍhaK*[*eya*] (P. 5.1.127), *-yaK* (P. 5.1.128), *-aÑ* (P. 5.1.119), *-aṆ* (P. 5.1.130-131) *-vuÑ*[*aka*] (P. 5.1.132-134), *-cha*[*īya*] (P. 5.1.134).

14)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규칙에서 규정하는 접사는 bhāva-pratyaya라는 명칭을 가진다. DSG 292의 *bhāvapratyaya* 항목 참조.

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한 규칙에서 등장하는 'bhāva'를 살펴본다.

1. 'bhāva'의 다의성

> ***tasya bhāvas*** *tva-taLau* || P. 5.1.119 ||
> [어떤 것]의 bhāva는 tva [또는] taL 접사[가 표시한다].

이 규칙은 2차 파생 접사 '-tva'와 '-taL(즉 -tā)'이 무언가의 'bhāva'를 표시하는데 사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들 접사의 적용에 관한 규정규칙(vidhi-sūtra)인 동시에 뒤 따르는 규칙들에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지배규칙(adhikāra-sūtra)[16]이기도 하다.[17] 따라서 이 규칙에 포함된 'tasya bhāvaḥ'라는 구문은 적어도 P. 5.1.136[18]의 규칙들에까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별한 문법적 조작에 관한 조건인 셈이다. 결국 'tasya bhāvaḥ'에서의 'bhāva'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접사의 기능 및 역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Kāśikāvṛtti*(7세기 경, 이하 KV)는 아래와 같이 주석한다.

> '**tasya**' 즉 제6격 어미로 끝나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것의 뒤에, '**bhāva**'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tva' [또는] 'taL(-tā)' 접사가 첨가된다. 그것으로부터 명칭(abhidhāna)과 인식[또는 개념](pratyaya)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bhāva**'이다. [어떤 특정한] 말이 사용(적용)되는 근거는 '**bhāva**'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된다. [예] 말(馬)의 bhāva는 aśva-tvam 또는 aśva-tā이다. [마찬가지로 소(牛)의 bhāva는] go-tvam 또는 go-tā이다.[19]

---

15) 小川英世 2006, 107.

16) 규정규칙 및 지배규칙에 관해서는 강성용 2011, 117-119를 참조.

17) 小川英世 1986, 95를 참조.

18) cf. P. 5.1.120. "*ā ca tvāt* ||" 또한 지배규칙의 효력지속 및 기타 기능과 관련한 설명은 지배규칙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강성용 2011, 134-140을 참조.

위의 설명에 따르면 제6격어미로 표시되는 ‘tasya’로 대변되는 요소, 즉 명사 어간(prātipadika)[20]의 ‘bhāva’를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tva’ 또는 ‘-tā’가 첨가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tasya’로 제시된 제6격어미는 사용된 단어 상호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능[21]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물과 소유자의 관계(sva-svāmi-sambandha)’로 파악하면 되어, 크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22] 중요한 점은 ‘bhāva’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Jinendrabuddhi(8세기 경)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동사 어근 √bhū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즉, 다의성) 때문에 이 ‘**bhāva**’라는 말은 의도(abhiprāya) 등과 같은 다양한 [뜻으로도] 사용된다. 이 경우, ‘**bhāv**a’라는 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까닭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KV는] ‘*bhavato ’smāt*’등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23]

위의 설명에 따르면 ‘tasya bhāvaḥ’와 관련하여, 동사 어근 √bhū가 지니는 다의성 때문에 이 구문의 ‘bhāva’ 역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

---

19) KV on P. 5.1.119. “**tasy**eti ṣaṣṭhī-samarthād **bhāva** ity etasmninn arthe tva-taLau pratyayau bhavataḥ | bhavato 'smād abhidhāna-pratyayāv iti **bhāvaḥ** | śabdasya pravṛtti-nimittaṁ **bhāva**-śabdenocyate | aśvasya bhāvaḥ | aśva-tvam, aśva-tā | go-tvam, go-tā ||” cf. 각주 설명 중의 동사 어근 √bhū의 3rd. du.형태인 ‘bhavataḥ’의 해석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심사자의 지적에 따라 필자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문맥에 맞춰 의역하였다. 예) 첨가된다, 발생한다 등.

20) KV on P. 1.2.45. “*arthavad adhātur apratyayaḥ prātipadikam* || arthavac-chabda-rūpaṁ prātipadika-saṁjñāṁ bhavati dhātu-pratyayau varjayitvā || 동사어근과 접사를 제외한 의미를 지닌 어형이 prātipadika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김현덕 2014, 179-184를 참조.

21) P. 2.3.50 “*ṣaṣṭhī śeṣe* || 나머지 [즉 kāraka나 prātipadika의 의미와는 별개로서의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 제6격 어미[가 발생한다].”

22) 다만 본문에서 살펴보는 ‘속성(guṇa)’과 관련한 추가 논의는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하여 ‘2차 파생 접사 matUP이 담당하는 의미에 관해 자세히 논하고 있는川村悠人(2015)의 연구가 참고할 만 하다.

23) *Nyāsa*(이하 Ns) on KV ad P. 5.1.119 “bhavater anekārtha-tvād bhavā-śabdo 'yam abhiprāyādiṣv anekeṣu varttate | tatra na jñāyate, ko 'trārtho bhāva-śabdena vivakṣitaḥ | ity atas tat-parijñānārtham āha | bhavato 'smād iti |”

다. 또한 Haradatta(13세기 경)는 'bhāva'와 동사 어근 '√bhū'의 의미에 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이 'bhāva'라는 말은 '*bhavateś ceti vaktavyam*'[이라고 하는 P. 3.1.43의 Vt]에 의해서 Ṇa 접사로 끝나는 것으로, 다름 아닌 의도(abhiprāya)를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의도**이다'와 같이. 또한 ['bhāva'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물/물질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사물**의 힘은 다양하다'처럼. 그리고 '지속적인 감정, 일시적인 감정'과 같은 성(性)적인 **감정**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접사 GHaÑ으로 끝나는 [bhāva]는 **어근 √bhū가 의미하는 [행위]**와 행위주체를 제외한 **kāraka**[24]를 의미한다. 어근 √bhū는 다음의 경우처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tatra bhavaḥ*** || P. 4.3.53'에 의해 '**sattā**'의 의미, '***dhānyānāṁ bhavane*** *kṣetre khaÑ* || P. 5.2.1'에 의해서 '**탄생, 생성**'의 의미, '***ittham-bhūta***-*lakṣaṇe* || P. 2.3.21, ***ittham-bhūtena*** *kṛtam iti c*a || P. 6.2.149'에 의해서 '**획득**'의 의미, '**bhūṣṇuḥ**(유복해지기 원하는 자), **bhūti-kāmaḥ**(재물을 원하는)'와 같은 '**재물**'의 의미, '**yasya ca bhāvena bhāva-lakṣaṇam** || P.2.3.27' 등에 대한 **동사 어근 일반의 의미**를 표시한다고, 후대에 주석가들에 의해 설명되었다.[25]

이들 주석서들의 설명을 살펴보면, 시대가 흐름에 따라 'bhāva'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이것의 의미에 관한 확정된 의견이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26] 흥미로운 점은 기원전 4세기 경의 인물로 여겨지는 Yāska에 따르면 고대인도에서는 'bhāva'의 의미를 '태어나 존재하고, 변화하며 주(住)하고, 쇠퇴하여 소멸한다'[27]고 여겨져 왔던 것

---

24) cf. P. 3.3.19 "*akartari ca kārake saṁjñāyām* ||"

25) *Padamañjarī*(이하 Pm) on KV ad P. 5.1.119 "bhāva-śabdo 'yam ***bhavateś ceti vaktavyam*** iti Ṇa-pratyayānto 'sty evābhiprāye | yathā | ayaṁ bhāva iti | asti ca padārtha-mātra-vacanaḥ | tathā | vicitrā hi bhāva-śaktaya iti | asti ca śṛṅgārādiṣu, sthāyī-bhāvaḥ sañcārī-bhāva iti | GHaÑ-antas tu bhavaty-arthe kartṛ-varjite ca kārake vartate | bhavatiś cānekārthaḥ, tad yathā, ***tatra bhava*** iti sattārthaḥ | ***dhānyānāṁ bhavane*** ity utpatty-arthaḥ, ***itthambhūte*** iti prāpty-arthaḥ, ***bhūṣṇur bhūti-kāmaḥ*** iti samṛddhy-arthaḥ, ***yasya ca bhāvena bhāva-lakṣaṇam*** ity-ādau dhātv-artha-mātra-vacanaḥ, vṛtti-kāropadarśitaś cāparaḥ |"

26) 畝部俊也(2015, 305) 역시 이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빠니니는 이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 *bhāve* || P. 3.3.18 ||[28)]
> bhāva가 표시되는 경우에.

이 규칙은 행위주체(kartṛ)를 표시하는 1차 파생 접사(kṛt) GHaÑ이 'bhāva'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어근에 첨가됨을 규정하고 있다.[29)] 그리고 여기서의 'bhāva'는 '동사 어근 √bhū는 행위 일반을 의미한다[30)]'는 KV의 설명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KV는 파생형으로서의 bhāva가 아니라 동사 어근의 의미(=bhavati)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어지는 다음의 설명을 위한 것이다.

> 동사 어근의 의미(dhātv-artha)는 동사 어근에 의해서만 표시된다. 그것의 완성된 형태인 명사로서의 특성에 대해서 GHaÑ 등의 접사들이 규정된다.[31)]

이것은, 예를 들어 동사 어근 '√bhū'의 의미인 'bhavati'라고 하는 '발생(존재, 생성)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bhū' 자체에 의해서만 드러나며, 이 '발생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 곧 dhātv-artha[32)]'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위'의 완성형(siddha-tā nāman)이 지니고 있을 특성은 GHaÑ 접사가 표시하기 때문에, 'bhāva'가 동사 어근에서 파생된 형태가 지니는 특성 = '완성된 행

---

27) Nr 1.2 "*ṣaḍ bhāva-vikārā bhavantīti vārṣyāyaṇiḥ | jāyate'sti vipariṇamate vardhate'pakṣīyate vinaśyatīti* | Vārṣyāyaṇi에 따르면 bhāva는 여섯 가지로 변화(파생)한다. [즉] '태어나다, 존재하다, 변화하다, 증장하다, 쇠퇴하다, 소멸하다'이다." 이러한 견해는 마치 '생주이멸'을 연상시켜 흥미롭다.

28) 이 밖에서 'bhāva'를 언급하는 규칙은 다수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규칙만을 제시한다.

29) KV on P. 3.3.18 "bhāve vācye dhātor GHaÑ-pratyayo bhavati |"

30) 앞의 책, "kriyā-sāmānya-vācī bhavatiḥ |" 이는 앞의 각주 25에서 언급한 Haradatta의 설명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다.

31) 앞의 책, "dhātv-arthaś ca dhātunaivocyate | yas tasya siddha-tā nāma dharmas tatra GHaÑ-ādayaḥ pratyayā vidhīyante |"

32) Mbh on P. 3.2.84 "kaḥ punar dhātv-arthaḥ | kriyā | 그렇다면 동사 어근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이다."

위'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문맥에 따르면 분명 '행위 일반(kriyā-sāmānya)'과 'bhāva'는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33] 이와 관련하여 Jinendrabuddhi와 Kaiyaṭa(12세기 경)는 흥미로운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운동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달성 수단(sādhana)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어근의 의미(=행위)는 bhāva이다. 운동을 수반하는 행위달성 수단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어근의 의미=행위]는 kriyā이다.[34]

위의 기술은 동사 어근이 행위 또는 bhāva를 표시한다고 하는 Mbh의 기술과도 맥을 잇는 내용이다.[35] 사실 빠니니 문법학에서의 'bhāva'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36] 이것이 행위와 관련한 'bhāva'에 대해 흔히 거론되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결국 이들 내용은 동사(ākhyata)[37]의 성격 또는 기능에 대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로부터 'bhāva'의 의미와 기능을 문법가가 의도하는 '어떤 범위'내로 한정하기 위해 KV의 'bhavato 'smād abhidhāna- pratyayāv iti bhāvaḥ[38]'라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위란 '명칭(abhidhāna)과 인식(pratyaya[39])이 발생하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명칭과 인식이란 무엇인가? 이하에서 이에 관해 살펴보겠다.

---

33) cf. KV on P. 2.3.37 "bhāvaḥ kriyā | 행위가 bhāva이다."

34) *Pradīpa*(이하 Pd) on Mbh ad P. 3.1.87. "a-parispandana-sādhana-sādhyo dhātv-artho bhāvaḥ | saparispandana-sādhana-sādhyas tu kriyā |" Jinendrabuddhi의 설명에서는 Pd의 dhātv-arthaḥ 대신 kriyā가 사용되고 있다. Ns on KV ad P. 3.1.87 "sā parispanda-sādhana-sādhyā kriyā kriyāśabdenocyate | a-parispandana-sādhana-sādhyā tu bhāva-śabdena |"

35) Mbh on P. 1.3.1 "atha yady eva kriyā-vacano dhātur ity eṣa pakṣo 'thāpi bhāva-vacano dhātur iti |"

36) 빠니니 문법 체계에서의 bhāva, kriyā의 가치에 대해서는 岩崎良行 1992, 75-76을 참조. 또한 본 논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관련한 내용은 畝部俊也 2015를 참조.

37) cf. Nr 1.1 "bhāva-pradhānam ākhyātam | sattva-pradhānāni nāmāni | tad yatrobhe bhāva-pradhāne bhavataḥ | bhāva를 주된 [개념으로] 하는 것이 동사이다. 명사들은 sattva(실체, 존재)를 주된 [개념으로] 하는 것들이다. 게다가 bhāva를 주된 [개념으로] 하는 [동사와 명사라는] 둘이 발생한다."

38) 앞의 각주 20을 참조. 또한 'iti bhāvaḥ'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ity-arthaḥ', 'ity-abhiprāyaḥ'와 동일한 뜻을 지닌 관용구로서 '~라는 의미이다'라고 번역되지만, 이 문맥에서는 '~것이 bhāva이다'를 의미한다.

39) pratyaya 역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이다. 문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접사'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와 같이 '인식, 개념'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因緣'에서의 '연'의 원어이기도 하다. 문법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DSG 264-265의 *pratyaya* 항목 및 강성용 2011, 215 이하를 참조.

2. bhāva = pravṛtti-nimitta

그렇다면 재차 P. 5.1.119의 'bhāva'에 주목해보자. 이 규칙에서의 문맥과 관련하여 Kātyāyana(BC 6~4세기 경)는 *Vārttika*(이하 Vt)를 통해 두 가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Vt. 5]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확정되어 있다. 실체에 대해서 말이 부여(śabda-niveśa)되는 것은 어떤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그 [속성을] 명기하기 위해 tva 또는 taL[접사가 사용된다].[40)]
> [Vt. 6] 혹은 모든 bhāva들은 자신의 bhāva에 의해 존재한다. 이것이 그것들의 bhāva이다. 그것을 명기하기 위해'[tva 또는 taL 접사가 사용된다].[41)]

Vt. 5의 설명은 어떠한 실체, 예를 들자면 '실체로서의 aśva'가 있고 그것에 어떠한 속성(guṇa)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실체(aśva)에 대해 'aśva'라는 말이 부여될 때,[42)] 그 실체(aśva)를 'aśva'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이 '-tva, tā'가 표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실체에 존재하는 속성' 때문에 말이 실체에 부여되는 것이기에, 여기서의 '속성' 다시 말해서 'bhāva'는 보편(jāti)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43)] 왜냐하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실체를 지칭하여 '말(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Vt.5에 따르면 그 '말(馬)'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말(馬)'이외의 것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보편적인 속성 때문인 까닭이다.

---

40) Vt. 5 on MBh ad P. 5.1.119 "*siddhaṁ tu yasya **guṇasya bhāvād** dravye śabda-niveśas tad-abhidhāne tva-taLau* |"

41) Vt. 6 on MBh ad P. 5.1.119 "*yad vā sarve **bhāvāḥ** svena **bhāvena** bhavanti sa teṣāṁ **bhāvas** tad-abhidhāne* |"

42) 畝部俊也는 Vt. 5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순전히 말의 부여(śabda-niveśa)이고 pravṛtti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앞서 KV에서도 등장한 pravṛtti-nimitta의 엄밀한 의미는 '말이 발화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임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畝部俊也 2015, 300의 각주 15 참조.

43) Bhartṛhari(CE 6세기 경)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통해 '말의 의미'에 대한 입장들을 보여준다. VP 3.1.2 "*padārthānām apoddhāre jātir vā dravyam eva vā* | *padārthau sarva-śabdānāṁ nityāv evopavarṇitau* || 단어의 의미들이 추출될 때, jāti 혹은 dravya야 말로 모든 말들이 지니는 [두 가지] 의미로서 [이것들은] 상주(nitya)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는 Vt. 6의 내용을 검토해보자. Vt. 6은 다분히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난해한 것으로 'bhāva'를 'bhāva'로 설명하고 있다. MBh는 첫 번째 'bhāva'를 'śabda'로, 나머지 둘의 'bhāva'를 'artha'라고 주석하고 있다.[44] 즉 모든 śabda(말)는 자기 자신의 artha[45]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 artha를 '-tva, tā' 접사가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모든 말 자신의 artha가 존재함을 이유로 -tva, tā 접사가 사용'됨을 설명하는 것이기에 일견 Vt. 5의 설명과 동일하다고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우네베[46]도 지적하듯이, 이들 두 Vt.는 설명의 방식은 동일하지만 지시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는 보편(jāti)을, 다른 하나는 보편이 아닌 다른 것을 'bhāva'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47] MBh의 설명은 결국 'pravṛtti-nimitta'로서의 'bhāva'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KV가 정의한 'bhāva', 즉 명칭(abhidhāna)과 인식(pratyaya)이 발생하는 기반에 다시 주목해보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은 개별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와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인지를 뜻한다. Jinendrabuddhi의 다음 설명을 살펴보자.

> 따라서 go-tva 등의 [bhāva]는 한정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피한정자로서의 소(go) 등[과 같은 대상들]에 대해서 'gau' 등등이라는 말(단어, śabda)가 발생한다. 또한 [bhāva로서의] go-tva가 형상화된 인지가 [생겨

---

44) Mbh on P. 5.1.119 "kim ebhis tribhir bhāva-grahaṇaiḥ kriyate | ekena śabdaḥ pratinirdiśyate dvābhyām arthaḥ | yad vā sarve śabdāḥ svenārthena bhavanti | sa teṣām artha iti tad-abhidhāne vā tva-taLau bhavata iti vaktavyam ||이들 세 개의 bhāva라는 단어들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하나의 [bhāva]는 śabda를 표시되고 [나머지] 둘은 artha를 [표시한다]. [따라서] "혹은 모든 śabda들은 자신의 artha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그 [śabda]의 artha이다. 따라서 그 [artha]를 명기하기 위해서 tva, taL이 발생한다'고 언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법학파 내에서는 세 종류의 해석이 시도되었다고 한다. 이들 해석에 관해서는 小川英世(1986, 116-117의 각주 27)가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45) 여기서의 'artha'의 의미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지시대상(vācya)와 말의 사용 근거(pravṛtti-nimitta)이다. cf. Pd on Mbh ad P. 5.1.119 "sa ca dvi-vidho vācya-pravṛttinimitta-rūpaḥ |" 본문의 문맥에서는 '지시대상' = '단어 자체의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라는 견해에 따른다.

46) 畝部俊也 2015, 302 참조.

47) 谷沢淳三 1987b, 46이하 참조. 이것은 앞의 각주 43에서 언급한 '말의 의미'와도 관련된 내용이다.

한다]. 소(go) 등과 같은 말의 적용 근거로서의 의미가 'bhāva'라는 말을 통해 설명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48]

우리가 위의 설명에서처럼 어떤 개체를 가리켜 '소(牛)'고 말하는 경우,[49] 그 '**소**'라는 말은 어떠한 원인/근거(nimitta)에 기반하여 발화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소'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어떠한 성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소'라는 명칭으로 지칭되는 것이다. 그리고 발화된 '소'라는 말을 들은 청자에게는 그 원인/근거에 기반한 인식, 즉 '소'라는 개념이 생겨난다.[50]

이 설명은 '소'라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padārtha)가 **무엇인가**[51]라는 측면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소'라는 말이 '실체로서의 소'에 **사용되는가**에 대한 것이다.[52]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가리켜 특정 명칭으로 부르는 행위는 그렇게 지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명칭을 들었을 때, 발화될 때와 똑같은 이유에 기반한 인식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의미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다. 원인으로서의 지칭/발화 행위는 'pravṛtti-nimitta'가 관건이고 결과로서의 의미의 이해는 결국 도출된 '의미(artha)'가 관건이지만, 이 경우에도 'pravṛtti-nimitta'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53]

선후관계를 지니는 '명칭과 인식이 발생하는 기반'이라는 'bhāva'에 대한 정

---

48) Ns on KV ad P. 5.1.119 "yasmād go-tvāder viśeṣaṇa-tvād viśeṣye gavādau gaur ity-evam-ādikaḥ śabdo bhavati, go-tvākāravatī ca buddhis, tena yo 'rtho gavādeḥ śabdasya pravṛtti-nimittaṃ sa bhāva-śabdenocyate |"

49) 이 경우 '소'가 눈앞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의 Vt. 5에 대한 본문 설명을 참조.

50) cf. Pm on KV ad P. 5.1.119 "yasmād go-tvāder hetor gavādau gau ity-evam-ādikam abhidhānaṁ pravartate, gaur gaur ity-evam-ādiś cābhinnākāraḥ pratyayo bhavati |"

51) 'padārtha'가 '말의 의미'는 물론 이를 통해 지칭되는 대상(개체, 단어 자체)라는 뜻으로 파악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52) cf. 谷沢淳三 1999, 22("문법학파에서는 말의 적용원인과 지시대상(vācya, abhidheya)을 구별하고 있으며, 말은 적용원인(pravṛtti-nimitta)에 의해 한정된 대상을 지시한다. 이는 a가 b[이다)라는 동일성 언명의 인식가치는 a와 b는 지시대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적용원인은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53) 畝部俊也(2015, 298-299)도 논자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의는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 본질은 지칭된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경우 jāti) 또는 artha인 것이다.[54]

그리고 Patañjali(BCE 2세기 경)는 말의 적용(pravṛtti)과 관련한 셋 또는 넷이라는 분류에 대해 언급한다.[55] 또한 이미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던 이러한 분류[56]에 따라 말은 'aśva-tva와 같은 보편을 표시하는 말(jāti-śabda), śukla-tva와 같은 속성을 표시하는 말(guṇa-śabda), pācaka-tva와 같은 행위를 표시하는 말(kriyā-śabda')[57] 등으로 나뉘게 된다. 더욱이 이처럼 적용 근거별로 말을 분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이 'bhāva'인지에 관한 문법학적 정설이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58]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tva/-tā의 의미 = bhāva = (śabdasya) pravṛtti-nimitta

다소 번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이상을 통해 P. 5.1.119가 규정하는 'bhāva'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것과는 분명 같은 기능/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다.[59] 결론짓자면, 어떠한 단어가 존재하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는 기체가 곧 'bhāva'이고, 이것은 결국 모든 단어가 실제로 적용되는 기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jāti, guṇa, kriyā 등은 각각 관련 단어의 'bhāva'

---

54) 모든 설명이 앞의 각주 44의 내용과도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편, 추상적인 성질'을 'pravṛtti-nimitta'로 보는 谷沢淳三의 주장(앞의 각주 8)은 오류라고 볼 수 있다.

55) MBh on *Śiva-sūtra* 2 "catuṣṭayī śabdānāṁ pravṛttiḥ | jāti-śabdā guṇa-śabdāḥ kriyā-śabdā yadṛcchā-śabdāś caturthāḥ | ... trayī ca śabdānāṁ pravṛttiḥ | jāti-śabdā guṇa-śabdāḥ kriyā-śabdā iti ||" cf. 'yadṛcchā-śabda'와 관련한 설명은 DSG 313, *yadṛcchāśabda* 항목. 또한 'yadṛcchā-śabda'에 '-tva, -tā'가 사용될 수 있는 점에 관한 설명은 谷沢淳三 1989, 1007-1008.

56) 谷沢淳三 1995, 947(106) 참조.

57) Ns on KV ad P. 5.1.119 "tataḥ punaḥ śabdānāṃ pravṛtti-nimittam aneka-prakāram | jāti-śabdānāṃ jātiḥ | aśva-tvam iti | guṇa-śabdānāṃ guṇaḥ | śukla-tvam iti | kriyā-śabdānāṃ kriyā | pācaka-tvam iti |"

58) 畝部俊也 2015, 305.

59) '행위'로서의 bhāva와 P. 5.1.119의 그것에는 차이가 있음이 Cardona에 의해서도 논증되고 있다고 岩崎良行(1992, 75)는 기술하고 있다.

로서 말의 사용근거가 된다. 결국 '-tva, -tā'의 사용, 즉 어기에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적용 근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I. 맺음말

지금까지 관련문헌의 설명을 통해 산스크리트 조어(造語) 접사 '-tva, -tā'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접사들이 문법학적으로 'bhāva'라고 불리며 말의 사용 근거(pravṛtti-nimitta)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인도 문법학 전통에서는 고래로 'jāti, guṇa, kriyā' 등을 사용 근거로 인정해 왔다. 이는 우네베가 주장하듯이, 말(śabda)이 적용(pravṛtti)되는 근거(nimitta)로서의 'bhāva'는 곧 존재로서, 문법학파가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인식의 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60] Patañjali가 '말의 의미는 존재성(sattā)을 벗어나지 않는다'[61]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말은 '화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artha)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말이 사용되었는가(nimitta)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P. 5.1.119의 'bhāva'는 이러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본문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bhāva'가 문법학적으로 '말의 사용 근거'라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문법학파 이외의 학파에서 사용된 이들 접사에 대해서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만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동일한 언어 체계를 공유하는 사상가들의 사고방식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누군가에게 'A는 B이다'는 사고방식/형식(또는 표현방식)이 'A는 B가 아니다'와 같은 형태로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드러난 결과(또는 의미)에는 그러한 결과(혹은 의미)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문맥의 차이가 분명 존

60) 畝部俊也 2015, 300을 참조.

61) MBh on P. 5.2.94 "na sattāṁ padārtho vyabhicarati |"

재할 것이다.[62)]

본 연구가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문헌들과의 대화'라는 의미에서의 'śūnya-tā, brahma-tvam(-tā), buddha-tvam(-tā), deva-tvam(-tā)' 등과 같은 단어들에 대한 문법학적 분석은 이러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종의 선행 단계 연구이다. 이는 이들 두 접사가 추상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라고 여겨지며 '~성(性)' 또는 '~라는 성질/상태'로 안이하게 번역 또는 이해되는 점에 대해 경계하기 위함이다.

62) cf. 谷沢淳三 1996, 776(173).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A Pāṇini's *Aṣṭādhyāyī*. see KV.

DSG *A Dictionary of Sanskrit Grammar by Late Mahāmahopādhyāya Kashinath Vasudev Abhyankar, M.A.*, Baroda: Oriental Institute, 1977.

KV *Kāśikāvṛtti of Jayāditya-Vāmana, along with Commentaries Vivaraṇapañcikā-Nyāsa of Jinendrabuddhi and Padamañjarī of Haradatta Miśra*, 6 vols, Ratnabharati Series 5-10, Varanasi: Ratna Publications, 1985.

MBh *The Vyākaraṇa-mahābhāṣya of Patañjali, edited by F. Kielhorn, third edition, revised and furnished with additional readings, references and select critical notes by K. V. Abhyankar*, 3 vols, Poona: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I: 1962, II: 1965, III: 1972.

Ns Jinendrabuddhi's *Nyāsa.* see KV.

Nr Yāska's *Nirukta*, in *The Nighaṇṭu and the Nirukta, the Oldest Indian Treatise on Etymology, Philology, and Semantics, Critically Edited From Original Manuscripts and Translated for the First Time into English, with Introduction, Exegetical and Critical Notes, Three Indexes and Eight Appendices* by Lakshman Sarup. Delhi: Motilal Banarsidass, 1967.

Pd Kaiyaṭa's *Pradīpa*, in *The Vyākaraṇamahābhāsya of Patañjali with The Commentary Bhāṣyapradīpa of Kaiyaṭa Upādhyāya and The Supercommentary Bhāṣyapradīpoddyota of Nāgeśa Bhaṭṭa, edited with notes and variants by Bhargava Sastri Bhikaji Josi,* 6 vols, Delhi: Chaukhamba Sanskrit Pratishtan, 1987-1988

Pm Haradatta's *Padamañjarī.* See KV.

Vt Kātyāyana's *Vārttika*. See MBh

VP *Vākyapadīya of Bhartṛhari with the Commentaries Vṛtti and paddhati of Vṛṣabhadeva, Critically edited by K. A. Subramania Iyer, M.A.*, 4 vols, Poona: Deccan College Postgraduate and Research Institute, I: 1966, II: 1983, III part 1: 1963, III part 2: 1973.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HAYES, Richard P. 1983. “Jinendrabuddhi,”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03, No. 4, 709-717.

IWASAKI, Yoshiyuki (岩崎良行). 1992.「バルトリハリの行為論ー動作名詞をめぐって」[“Bhartṛhari on Action: Concerning Action Noun”],『印度哲学仏教学』(*Hokkaido Journal of Indological and Buddhist Studies*), vol. 7, 67-100.

KAHRS, Eivind. 2013. “Action, being and brahman,” *The Journal of Hindu Studies*, vol. 6, No. 3, 317-332.

_____. 2014. “*Vyākaraṇa: Bhāva* as the Ultimate Cagegory,” in *Categorisation in Indian Philosophy: Thinking inside the Box*, Jessica Frazier ed., Farnham, Surrey, England and Burlington, VT: Ashgate, 11-25.

KANG, Sungyong (강성용). 2011.『빠니니 읽기: 인도 문법전통의 이해』[*Reading Pāṇini: Introduction to Classical Indian Grammatical Tradition*], Paju: 한길사(Hangilsa).

KAWAMURA, Yūto (川村悠人). 2015.「*Aṣṭādhyāyī* 5.2.94におけるasyaとasminの言明目的-matUP導入をめぐる第六格接辞と第七格接辞の意味論」[“On the Purpose of Mentioning asya and asmin in Aṣṭādhyāyī 5.2.94”],『インド哲学仏教学研究』(*Studies in Indian Philosophy and Buddhism*), vol. 22, 227-249.

KIM, Hyeondeog (김현덕). 2014.「파니니(Pāṇini) 문법의 형태론_단어(pada) ; 어기(語基)와 접사(pratyaya)」[“The Morphological character of word(pada) in Aṣṭādhyāyī”],『인도철학』(*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42, 163-195.

OGAWA, Hideyo (小川英世). 1986.「Kauṇḍabhaṭṭaのbhāvapratyaya論」[“Kauṇḍabhaṭṭa on the meaning of the affix bhāvapratyaya”],『広島大学文学部紀要』(*The Hiroshima University Studies, Faculty of Letters*), vol. 45, 94-118.

_____. 1988.「BHĀVAPRADHĀNA-NIRDEŚAについて」[“On bhāvapradhāna-nirdeśa”],『印度學佛教學研究』(*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 37. No. 1, 446(68)-443(70).

_____. 1995. “An Action (kriyā) and Its Cognition: Grammarians’ Approach,”『印度學佛教學研究』(*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 44. No. 1, 490(5)-485(10).

_____. 1997.「*Mahābhāṣya* ad P1.3.1研究(8)」[“A Study of the Mahābhāṣya ad P1.3.1(8)”],

『広島大学文学部紀要』(*The Hiroshima University Studies, Faculty of Letters*), vol. 57, 57-76.

_____. 2006. "What is *bhāva*?: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Term *bhāva*," *The Annals of the Research Project Center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ogic*, vol. 3, 107-115.

PARK, Jungnok (박정록). 2008.「인도어 접미사 -tā, -tva 등의 한역어 性에 관한 고찰 존재론적 함의의 변화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Sanskrit suffix -tā and -tva"],『인도철학』(*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25, 37-66.

TANIZAWA, Junzo (谷沢淳三). 1987a.「BhartṛhariにおけるPravṛttinimitta」["Pravṛttinimitta in the Case of Bhartṛhari"],『印度學佛教學研究』(*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 35. No. 2, 980(41)-978(43).

_____. 1987b.「jātiに関する一考察-Mahābhāṣyaを中心として」["*Reference of jāti: With a central focus on *Mahābhāṣya*"],『佛教學』(*Journal of Buddhist Studies*), vol. 22, 45-59.

_____. 1989. "yadṛcchāśabda and saṃjñā: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per names,"『印度學佛教學研究』(*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 37. No. 2, 1008(17)-1003(22).

_____. 1995.「Guṇavacanaと指示:文法学派による哲学的考察」["Guṇavacana and Reference: Philosophical Remarks on the Pāniṇian Grammarians"],『印度學佛教學研究』(*Journal of Indian and Buddhist Studies*), vol. 43. No. 2, 947(106)-943(110).

_____. 1996.「tat kṛṣṇamとtasya kṛṣṇatvam」["tat kṛṣṇam and tasya kṛṣṇatvam"], in『インド思想と仏教文化：今西順吉教授還暦記念論集』(*Indian thought and Buddhist culture: *60th* Birthday Memorial Collection of Junkichi Imanisi*), Tokyo: 春秋社 (Shunjusha Publishing Company), 776(173)-766(183).

_____. 1999.「パーニニ文法学派の固有名論と<フレーゲのパズル>」["Pāniṇian Theory of Proper Names and Frege'S Puzzle"],『人文科学論集: 人間情報学科編』(*Studies in humanities: Human sciences*), vol. 33, 21-35.

_____. 2004.「kriyā, 行為, 出来事-PatañjaliとBhartṛhari」["Actions, Events, and Kriyās with Special Reference to Patañjali and Bhartṛhari"],『人文科学論集: 人間情報学科編』(*Studies in humanities: Human sciences*), vol. 38, 27-42.

TSUJI, Naoshirō (辻直四郎). 2003.『サンスクリット文法』[*Sanskrit Grammar*], Tokyo: 岩波書店 (Iwanami Shoten).

UNEBE, Toshiya (畝部俊也). 2015.「言葉の使用の根拠としての「存在」: 文法家にとっての「世界認識の枠組み」としてのbhāva」["'Being' (bhāva) as Grounds for the Use of a Word (pravṛtti-nimitta): The Grammarians' Theory of the Framework of Cognition and Categorization"],『インド哲学仏教学研究』(*Studies in Indian Philosophy and Buddhism*), vol. 22, 295-311.

The Comprehension of '*Bhāva*' in P. 5.1.119 in Relation to the Taddhita (Secondary suffix) '*-tva*, *-tā*' in Sanskrit Word Formation: The Function as *Pravṛtti-nimitta*

KIM, Hyeondeog
Researcher, Institute of East-West Though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a careful analysis of Sanskrit grammar rules can shift our perspective on translations that have been taken for granted.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well-known Sanskrit secondary suffixes (*taddhita*) '*-tva*, *-tā*,' which are used in examples such as '*śūnya-tā/-tvam*,' '*brahma-tvam/-tā*,' '*buddha-tvam/-tā*,' '*dharma-tvam/-tā*,' and '*deva-tvam/-tā*.' These suffixes are conventionally translated as '-ness,' '-hood,' or '-nature.' Of course, these translations are not entirely wrong.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original (or correct) understanding is possible if we aim to understand the derivatives of these affixes with our own linguistic sense of '-ness,' '-hood,' and '-nature.' Cross-linguistic translation and comprehension are challenging, especially for ancient languages such as Sanskrit and Chinese, which have grammatical systems vastly different from ours.

Pāṇini defined the use of these suffixes in his grammatical rule (P. 5.1.119) in the *Aṣṭādhyāyī* as '*tasya bhāvas tva-talau*' ('*-tva* or *-tā* are used to indicate the *bhāva* of a word'). Therefore, I consider the meaning of *bhāva*, which is the application condition for these suffixes, in this paper. Through this, it is clarified that this word (*bhava*), which is generally understood to mean 'completed action,' functions as a basis for using words (*pravṛtti-nimitta*) in the context considered in this paper.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Indian tradition of grammar, the grounds for using words for a substance (*dravya*) are classified into three (*jāti*, *guṇa*, *kriyā*) or four (*jāti*, *guṇa*, *kriyā*, *yadṛcchā*). Thus, in relation to the use of '*-tva*, *-tā*'—that is, in the application of the base (語基, *prakṛti*)— these various grounds for using words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it is argued that discussions regarding the rationale for using certain words should focus on the question of why the word was used (*nimitta*), not on establishing its meaning (*artha*).

Keywords
actions (*kriyā*), *bhāva*, *pravṛtti-nimitta*, properties (*guṇa*), *-tā, -tva*, universals (*jāti*)

2022년 02월 11일 투고
2022년 03월 12일 심사완료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